

'88年度 設問調査 結果報告

본 조사는 「계간 통신정책동향」이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지로서 情報化社會에 대한 인식 제고와 통신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창간된 이래 그 동안의 내용 및 편집체제 등에 대한 평가 및 비평을 통해 앞으로 보다 유익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情報通信 사업, 정책 및 연구분야의 종사자와 학계, 언론계 관련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 설문조사는 총 113명이 응답했으며 조사방법은 郵便調査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을 종사분야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表 1> 응답자들의 종사분야

분야	%	분야	%
정보통신연구분야	16.1	정보통신사업분야	15.2
학술분야	27.7	전기통신정책분야	13.4
정보화사회연구분야	8.9	언론, 출판분야	4.5
기타	14.3	계	100.0

* 調査結果

1) 季刊誌에 대한 평가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季刊 通信政策動向」이 예년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89.3%) 통신정책 및 정보화사회 분야의 편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점 만점에 약 7점) 그러나 通信政策分野가 7.4점, 정보화사회분야가 6.7점을 받아 기존의 편집내용이 정책분야에 치중해 왔고 정보화사회분야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잘 반영해준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보통신분야의 政策動向뿐 아니라 일반국민을 염두에 둔 미래의 정보화사회에 대한 다각적인 소개와

인식의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에게 내용 및 편집체제 등의 11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상에 평가를 내리게 하여 평균점수를 계산한 결과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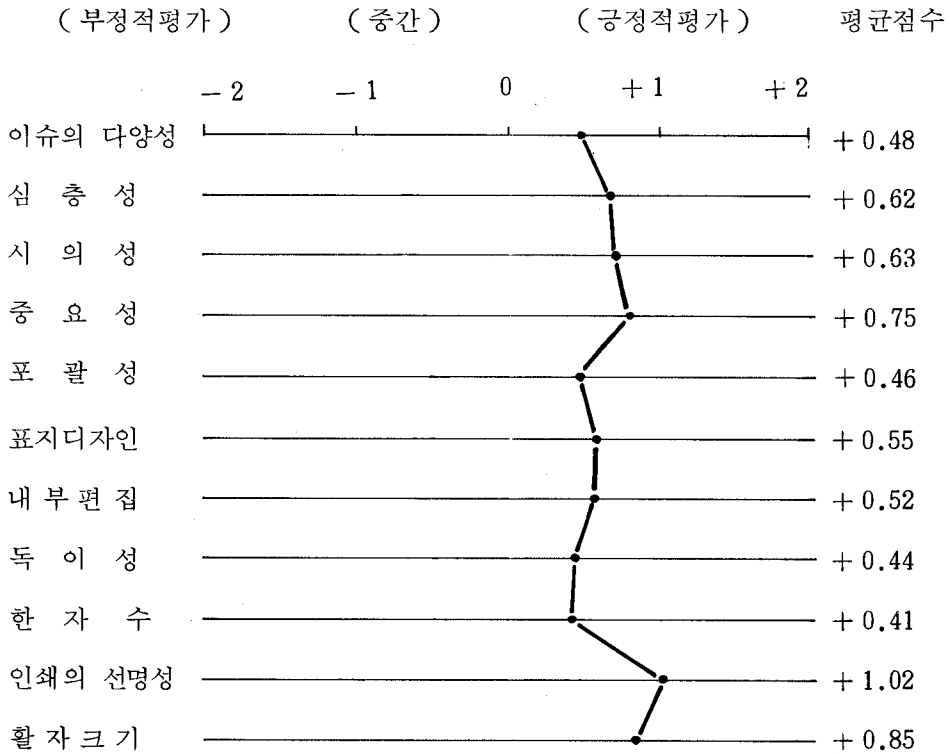
이를 보면 우선 내용 및 편집체제, 인쇄 및 활자상태 등 11개 항목 모두가 긍정적인 評價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인쇄의 선명성(평균점수 +1.02)과 활자크기(0.85)였으며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項目은 이슈의 다양성(0.48), 내용의 포괄성(0.46), 한자수(0.4) 및 독이성(0.44)이었다. 이는 「계간 통신정책동향」이 내용의 다양성, 포괄성같은 질적요소보다 인쇄나 활자등과 같은 외형적 요소가 높은 점수를 받아 향후 編輯方向을 이슈의 다양화 및 포괄성, 심층성등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한자가 많고 용어가 어려워서 독이성이 낮다고 評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뒷부분의 「계간지에 대한 조언」부분에서도 나타나듯이 「각주」란의 위치변경, 레이아웃의 문제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정책동향」지가 情報化社會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긍정적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9.3%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중립적이다가 6.3%, 그리고 부정적이다(0.9%), 잘모르겠다(3.6%)의 순으로 나타나 「통신정책동향」지가 정보화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계간지의 발전을 위한 조언

한편 계간지의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조언을 해달라

〈表 2〉 계간지에 대한 평가



는 질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들은 편집 및 내용에 대한 평가나 앞으로의 방향제시에 대한 조언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내용의 균형성이나 다양성에 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이에 ①美國, 日本 위주의 내용계재에서 벗어나야 하며 ② 학계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등의 비판적 시각, 그리고 동일주제를 놓고 기업체, 체신부, 통신공사등 유관단체 종사자의 기고를 통해 다각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 ③외국 위주의 사례소개에서 탈피하여 國內情報通信에 대한 내용 및 그것이 도입된 후의 한국적 실태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④외부학계의 논문을 기고하거나 차기 발간호의 주제를 정하고 원고를 공모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 계간지의 성격을 응답자들은 “표제는 동향

지이나 내용은 기존의 유사저널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차별화가 요구된다”고 보고 그 방안으로 ①한층 專門性을 살려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학술내용을 심는 전문지로 나아가거나 ②발행주기를 늘려 시의적이고 시사성있는 「정보지」, 「속보지」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배포체계를 개선하여 메일링리스트를 전산화하여 고정배포독자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누적적인 색인발간작업, 번역문에 추가로 원문을 보장하는 작업, 좌우여백에 달아 놓은 각주를 하단부로 옮겨서 독이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등이 있었다.

한편 앞으로 계간지인 通信政策動向지가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 및 분야로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학술내용 및 연구논문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보강과 아울러 소개되는 새로운 테크놀러지가

<表 3> '계간 통신정책동향'에 대한 조언내용

	내 용	%
편집 및 내용에 대한 평가와 방향	내용의 균형성, 다양성에 관해 계간지의 성격에 관해 편집요소에 관해 배포체계에 관해 발행횟수에 관해 기타	41.8 9.1 5.5 4.5 3.6 7.2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 및 분야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학술내용 및 논문 하드웨어에 관한 내용보강 인문사회학적인 내용보강 기타	7.2 5.5 6.4 4.5
KISDI에 대한 평가 및 방향	KISDI의 향후 역할에 관해 대국민홍보등	16.4 1.8
합계 (중복응답결과임)		114.4

사회 및 일상생활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사회학적 연구의 게재, 그리고 情報通信關聯 주요지표, 통계의 소개, 법적 고찰 지면의 확대등도 지적되었다.

KISDI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KISDI가 정부의 통신정책을 비판, 선도하는 입장에 서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동향분석실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표지 디자인 및 레이아웃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집 및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의견들을 반영하여 나갈것을 밝혀 드립니다.

끝으로 설문에 응해 주신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동향분석실